

■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14>

공과상제(功過相除)

공로와 허물을 서로 빼 보라

권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사람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공(功)7 과(過)3’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사람이 한 일 전체를 10으로 본다면 그는 세운 공적은 7할쯤이고, 정치를 하다가 실책하여 실패한 것은 3할쯤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이 정확하게 모택동의 공과(功過)를 설명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과(功過) 양쪽을 다 보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모택동을 합리적인 평가를 한 중국에서도 정적을 제거할 적에는 이러한 합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모자를 씌워 버린다. 예컨대 중국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려 할 때에는 빈번히 모자를 씌운다. 정부에서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저 사람은 ‘수정주의자’라고 규정하면 다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용서 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근세의 반체제 학자인 팔리츠의 자서전에 잘 나와 있다. 정말로 중국의 발전과 장래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였던 세계적인 학자가 중국정부의 교육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다가 전안공장에서 일어난 반체제 운동의 주범이라는 모자가 씌워지니 하는 수 없이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공이 많고 과가 적은 학자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사례이다.

예전에도 정권이 바뀌거나 권력자가 바뀔 때면 어김없이 이 모자 씌우기가 등장한다. 남이 공격하려고 씌우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많은 상이나 대우를 받으려고 공로를 세웠다고 모자를 씌운다. 북위(北魏) 시절에 선무제(宣武帝)가 죽고 효명제(孝明帝) 원후(元詡)가 등극하였을 때의 이야기다. 이때에 원후의 나이는 겨우 5살이었다. 황제가 이렇게 어리니 자연스럽게 그 모후인 호태후(胡太后)가 수렴청정하며 황제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정권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면 이러한 기회에 공로를 뺏기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적에게 모자를 씌워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평가의 대상이 된 사람은 우충(于忠)이었다. 그는 선비적으로 출세를 거듭하다가 선무제(宣武帝)의 총애를 받았다. 그리고 선무제가 죽었을 때에는 원후를 옹립하여 황제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우충은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었다. 조정(政令)을 내려 살리거나 죽이는 것은 모두 그에게서 나왔으니, 왕과 공신들도 그를 두려워하여 발을 포개고 숨을 죽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호태후가 이미 친히 정사를 하게 되자, 우충을 시중(侍中)·영군(領軍)장군·송훈위위(崇訓衛尉)에서 해임하고, 의동삼사·상서령에 그치도록 하였다. 일정한 정도 제한하기는 했지만 우충은 여전히 권력자였다.

사실 우충 자신은 효명제가 등극할 때에 힘을 보탬으로써 사직을 안정시킨 공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서, 모든 관료들에게 넉넉히 말하여 자기에게 상을 덧붙이도록 하니, 드디어 우충은 상산군공(常山郡公)에 책봉되었다. 다만 우충은 또 혼자 받기가 어려워지자 마침내 여러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서 모두 책봉을 받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충은 스스로 공신이라는 모자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자인 호태후는 그 사람에 대하여 평

가를 해야 했다. 호태후는 총명하였으며, 자못 책읽기와 글짓기를 좋아하고, 활을 쏘면 비늘의 구멍을 맞출 수 있었으며, 정사는 모두 직접 손으로 써서 스스로 결정하였다. 호태후는 스스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수렴청정하기 시작한 후 10여 일이 지나서 태후는 송훈공(崇訓公)으로 문하성의 시중 드는 관원들을 다 들어오도록 하여 물었다. “우충이 단규(端規, 재상)로 있었는데 명성(名聲)과 명망(名望)이 어떠한가?”

이 질문에 모인 관원들은 일제히 말하였다. “그 임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공과를 자세히 믿을만한 평가를 하지 않고 모자를 씌운 것이다. 이에 따라서 호태후는 우충을 내보내어 도독기정영삼주제군사(都督冀·定·瀛三州諸軍事)·정복(征北)대장군·기주(冀州, 치소는 信都, 하북성 冀縣)자사로 삼았다. 과거의 권력자를 지방으로 내쫓은 것이다.

또 우충이 스스로 공로를 세운 것을 내세워 작위를 받은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 못되었다고 상소문을 올리니 태후가 공경들에게 칙서를 내려서 다시 의문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태부 원억(元擘)이 말씀을 올렸다. “신무황제께서 승하(升遐)하셨을 때, 우리는 효명제를 받들어 맞이하고 시중하고 호위하면서 공문을 살폈지만 신하된 자의 일상적인 직책이니 이것을 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는 우충이 스스로 공신이라는 모자를 쓴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로가 아니라는 말이다.

뒤이어서 그는 “신 등이 이전에 의론하여 우충에게 모토(茅土)를 주어 책봉한 것은 바로 그의 위협적인 권력을 두려워한 것이고, 진실로 황포에서 벗어날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적과 허물을 서로 빼면, 모두가 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청컨대 모두를 추탈(追奪)하십시오.”이는 자신들이 우충의 권력에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그의 말을 좇았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의 작위를 빼앗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나타나는 공과상제였다.

우리 사회에도 정치적 사회적 변동이 있을 적마다 공정한 평가보다는 모자를 씌워서 작대세력을 몰아내는 행태가 종종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모자는 ‘빨갱이’이다. 이는 북한과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빨갱이라는 모자만 썼다하면 설사 형벌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다. 이러한 부당성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이번에는 ‘친일파’라는 모자가 등장하였다. 친일파 명단이 책으로 만들어 지더니 모든 서훈에서 배제가 되었고, 그동안 민족을 위한 여러 활동에서 그렇게 추앙 받던 사람도 후 일부 혹은 한동안 친일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하여 공격을 가한 것이다. 그 위에 요즘에는 또 토착왜구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자 씌우기는 정권이 바뀌면 또 반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평가는 후진적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자 씌우기에서 얼마나 역물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된다. 그러기에 모자 씌우는 평가는 단절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사회가 되면 필수록 성숙하고 합리적으로 공과를 평가해야 한다. 허투루리 정확하게 공과를 따져서 더하고 빼기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것 때문에 비극을 맞는 사람도 없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송암 권호문의 처사적 삶과 학행 학술대회 개최



권기철 송암 종손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의 처사적 삶과 학행’이라는 주제로 11월 20일 오후 1시 한국국학진흥원 대강당에서 2019년 마지막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변동걸 한국국학진흥원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내빈을 소개하였는데 조현제 한국국학진흥원장을 비롯하여 김종길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 권기철 송암 종손, 권계동 권오수 권중준 안동권씨대종회 고문, 이근필 도산서원운영위원장, 권숙동 안동권씨안동동친회장, 김동룡 안동시 부시장, 권을. 권택기 전 국회의원, 김명호 경북도 의원, 김휘동 전 안동시장, 권영길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장, 권오의 대중회 사무부총장, 권기호 파주회장협의회장, 이봉수 안동문화원장, 권창룡 예천문화원장, 이재업 독도재단이사장, 심재택 박약회안동지회장, 조병기 담수회안동지회장, 유시대 안동청년유

도회장, 각 문중 종손, 유림,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조현제 국학진흥원장이 개회사를, 권기철 송암종손이 문중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이날 대회에서 기조발표는 30분, 주제 발표는 5명의 교수가 한 사람당 20분씩 발표했다. 기조 발표자 황위주 경북대 교수는 ‘송암 권호문의 삶과 처사지향’을 발표하고 주제발표자 권경렬 한국고전번역원은 ‘송암 권호문의 학문과 사상’, 손대현 동아대 교수는 ‘송암 권호문 시가의 서술양상과 정서적 기반’을 발표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20분간 후식을 가졌다. 곧 이어 황만기 안동대 교수는 ‘송암 권호문의 한시 창작과 특징적 양상’, 김순미 경성대 교수는 ‘가집(家集)편에 투영된 송암 권호문의 가족 윤리 의식’ 마지막으로 이광우 영남대 교수는 ‘16세기 중·후반 송암 권호문의 향촌사회 활동과 동강(洞鑑)’을 발표하는 등 4시간에 걸쳐서 학술대회를 마쳤다. 이어 발표자와 문중 대표, 유림 등 20여명이 단상으로 올라가 단체기념촬영을 했다.

송암 권호문은 1532년(중종 27) 안동시 서후면 송방리에서 태어나 1587년(선조 20) 안동 분기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55년간 평생 안동 지역에서 천명을 깨닫고 즐기는 삶을 실천했다. 15세에 외조부 퇴계(退溪) 문화에 입문한 이후 퇴계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랜 기

간 동안 측근에서 직접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던 만큼 퇴계 핵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퇴문삼처사(退門三處士)로도 잘 알려져 있다. 송암은 14권 5책에 달하는 문집에 많은 시문을 남겼다. 특히 이 가운데 경기체가 형태의 ‘독락팔곡(獨樂八曲)’과 평시조 연작 형태의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이 수록되어 있어 그 동안 국문 시가를 남긴 대표적인 문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기조 발표자 황위주 교수는 송암이 퇴계를 스승으로 모시는 가운데 어떤 인물들을 주로 교유하였는지 그가 실천한 처사적 삶이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그 동안의 연구가 국문시가에 집중된 나머지 송암 선생의 삶과 학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혀진 게 없었다. 최근 ‘송암집’이 완역되면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권해옥 대중회장을 비롯하여 김병일 도산서원장, 권숙동 안동동친회장, 권오규 안동향교 전교, 김종길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 호안회 등 6명이 대령화환을 보내와 대회를 빛나게 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아울러 산림처사 송암 권호문의 삶과 학문이 수록된 책 1권과 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권)



마창진 종친회 시조 태사공 및 낭중공 추향제 참배

마창진 종친회(회장 권태형)는 11월 16일(토) 시조 추향제에 대형버스 1대를 대절하여 참석하였다. 권태형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회원들은 이른 아침 마산을 출발하여 추향제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능곡사사에 도착하였다. 회원들은 ‘시조 태사공 추향제 참배’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조 묘소 앞에서 단체로 사진을 촬영했다. 회원들은 낭중공 추향제에 참석하여 제막식의 역사적 의미도 새기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서울마포종친회 정기총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9년 12월 8일(일) 오후 13시
- ◆장 소: 우기촌(가마솔설령탕)02-702-5047, 010-5358-2840
- ◆오시는길: 지하철5호선 공덕역5번 출구·지하철6호선 공덕역6번 출구
- ◆연 락 처: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19년 12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서울산악회 송년산행 안내 (제302차)

- ◆일 시: 2019년 12월 15일 오전 10시(매월 3주째 일요일) ◆산 행 지: 남산 둘레길
- ◆집결장소: 지하철 3호선 동국대역 6번출구(마출소 앞) * 시간 엄수 바랍니다.
- ◆준 비 물: 식수, 간식, 산행시 필수장비 등 개인별 준비
- ◆기 단: 송년산행 중식제공(식당예약 관계로 참석 여부 꼭 부탁드립니다.)
- ◆찾아오시는 길: 1-4호선 서울역 11번 출구, 12:30분까지

회 장(권중훈):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오준): 010-3261-2570

2019년 12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 중 훈

樞密公派祖 歲享 및 樞密公派大宗會 定期總會 안내

晩秋之節에 여러 회원님들의 康寧과 家內均安을 기원합니다. 樞密公派祖와 忠憲公의 己亥年 秋享祭禮 奉行과 樞密公派大宗會 定期總會를 아래와 같이 開催하오니 追惟報本과 樞密公派大宗會 발전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參祭와 定期總會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19년 12월 12일(목) 10시 30분
- ▶장 소: 한국자유총연맹 2층 대회의실
- ♣주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2238-1037)
- ♣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신라호텔 위쪽, 국립극장 맞은편
- ▶진 행: 秋享祭禮, 定期總會, 食事
- ▶정기총회 안건: 2019년도 결산, 감사보고, 2020년도 예산
- ▶연락처: 권경일 사무처장 010-3039-7282

安東權氏樞密公派大宗會 會長代行 權 五 敦